

# ‘중대선거구제’ 화두...선거법 개정 불붙나

대통령·의장, 물밑교감 관측  
국회 정개특위 심사 본격화  
현역 반발 등 회의적 시각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

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를 새해 화두로 띄운 만큼 해당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선거제 개혁을 통한 대표성 강화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

해졌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고 한다.  
총선 물줄기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아예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는 특단의 구상이다.  
수정안 제출 권한이 있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하루 2시간씩 이틀 내로 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이 김 의장의 법 개정 주문에 발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공은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온 가운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는 2월에는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다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여러 사안이 맞물린 만큼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대 개혁·3대 혁신 본격 추진”

한 총리, 시무식서 강조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의 3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

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다양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모든 분야에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의 단단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며 구조개혁 외 민생경제 회복,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지방 균형발전,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등 다른 핵심 과제도 열거했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취약계층의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규제 합리화, 주거 안정화 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약자 복지’ 강

화,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마약·스토킹 등 중대 범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 선제적인 국가안전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인사말 앞부분에서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나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게 “국민 생각과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낡은 관행과 특권의 구태는 과감히 혁신하고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 옥신각신

민주, 소집 필요성 공식 제기  
국힘 “오해 피하려면 설 쇠고”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로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얕팍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쉽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

과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본회의 현안질문 등을 요구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회기가 국회의원의 사법 처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밀려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안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인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



자들에게 “신년인사회에 초청한다는 메일이 대표 메일로 접수됐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 신년 인사에 이어 김 의장의 건배 제의, 김 대법원장, 유 헌재소장, 노 선관위원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덕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 총리의 2023년 신년 다짐으로 40분간의 행사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 모델 강석우 내연신 부부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공갈,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국산 원재료 함유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 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양소 (03)950-4907, 북부영양소 (03)989-9392, 남부영양소 (03)291-6535, 관영영양소 (03)293-4999, 서영영양소 (03)294-2055, 연영영양소 (02)705-9199, ● 광주-전남: (03)374-8801, ● 충청: (03)324-5731, ● 전북: (03)294-5001, ● 경북: (03)359-3441, ● 강원: (03)323-6531, ● 제주: (05)471-4331, ● 부산: (051)24-6561